



전은 대학생 서포터즈, 환경 나눔 플로깅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18일 전주덕진공원 일대에서 '환경 나눔 플로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은행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환경 분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이날 대학생 서포터즈 10여명은 전주덕진공원 일대를 산책하듯 걸으며 화단 길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수거한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 배출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적인 재활용을 위해 앞장섰다. /김윤상 기자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진봉모 회장, 체육대상 수상

남원시는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진봉모 회장이 18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체육(분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뉴스대원과 글로벌 더원방송이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진봉모 회장은 지방 소도시에서 전국적인 거점 공공스포츠클럽 체계를 완성해 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쌓은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진봉모 회장은 35년간 남원시청 공직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동안 공직근무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과 녹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있으며, 퇴임 후 2012년 남원시체육회 부회장이로서 남원시 체육발전을 위해 충주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빅데이터 마케팅 GAQ 자격증 취득 지원

전주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관으로 빅데이터 마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GAQ) 취득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마케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15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는 구글이 제공하는 웹트래픽 분석 도구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웹 솔루션으로 주요 교육과정은 ▲구글 애널리틱스와 디지털 분석 도구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구조 ▲이벤트 설정과 각종 세그먼트 활용 ▲보고서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원에능협,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전주원에능협(조합장 김우철)은 19일 전주원협에서 공판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대표포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자금융을 이용한 고액의 물품대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보이시페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피해발생 및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해당은행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철 조합장은 "단 한건의 금융사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주의를 요할 것"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다”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 저소득계층 김장김치 나눔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대표 전덕일)’는 지난 19일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해 2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중화산동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 회원, 관내 지역구 이기동 시의원, 중화산동 오재수 동장 및 직원 여러분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는 그동안 중화산동 주민센터(동장 오재수) 옥상 텃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왔으며, 이번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또한 옥상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배추를 사용했다. 전덕일 대표는 “공동체 회원들이 땅을 일구어 만든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화산동 오재수 동장은 “중화산동 소외계층을 위해 한바탕 한뜻으로 온정의 손길을 더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상임단원, 문화관광재단에 2175만원 기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단체를 돕기 위해 전북도립국악원 상임 단원들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도는 전북도립국악원 상임 단원들이 전북문화관광재단에 2175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훈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박미선 전북도립국악원 노조 지회장, 이기전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전북도립국악원 상임 단원 110명이 2021년도 상반기 공연수당의 일부(50%)를 기부하는 데에

뜻을 모아 진행됐으며, 전달된 성금은 문화관광재단의 직접 기금에 편입 후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체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미선 전북도립국악원 노조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전북도립국악원 상임 단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병원 김소은 교수팀, 학술대회서 우수초록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팀이 2021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소은 교수팀은 4일에서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심정지 동물모델에서 저체온 치료의 신기능 보호효과에 대한 연구(Protective effects of therapeutic hypothermia on renal injury in an asphyxial cardiac arrest rat model)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저체온 치료가 심정지 동물모델에서 허혈 및 재관류로부터 비롯된 손상에 관여하는 활성산소, 인지질과사 및 세포자멸사 과정의 활성화를 차단하고 억제하여 심정지 후 예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체온 치료는 심정지로부터 순환회복이 되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경도(32~34도)의 저체온 상태로

일정시간동안 유지함으로써 심정지 이후 발생한 손상을 최소화 하는 치료 방법으로 현재 전북대병원 응급센터에서 활발하게 시행되는 심정지 환자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저체온치료의 치료효과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신장세포의 자멸사 감소, 염증성 매개물질 분비의 저하, 활성산소 발생 감소와 허혈 재관류 손상에 발생하는 일련의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밝힌 의의가 있다.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급의학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의료원, 저소득가구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 나누리봉사단은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나누리봉사단은 남원의료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2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집수리 및 의료봉사, 나눔봉사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저소득가구 노인 3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한 것으로, 남원의료원 임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한 기금으로 실시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한편 박주영 원장은 “앞으로도 남원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원대,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캠페인 펼쳐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이 19일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 휴게소에서 돌고래 쉼터 구간까지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호원대 재학생 및 교직원들과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환경식 이사장) 회원들이 참여해 방조제 구간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양해면 사회봉사단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이2동 전주완산로타리클럽, 사랑의 연탄나눔

전주시 우이2동 주민센터(동장 장덕현)는 지난 19일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조성태)과 함께 관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한 연탄나눔봉사를 펼쳤다.

완산로타리클럽은 우이2동주민센터와 결연을 맺은 봉사단체로 매년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이날 클럽회원 40여명은 저소득 어르신 가정 27가구에 연탄 8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조성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홀로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지속적으로 연탄봉사를 통한 사랑나눔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해성교, 취약계층에 연탄·유기농 백미 기부

전주시 서서하동(동장 전아름)은 지난 19일 전주해성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65만 원 상당의 유기농 백미와 연탄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유기농 백미와 연탄은 전주해성고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마련했으며, 관내 취약계층 47가구에 전달됐다.

해성고등학교 학생 일동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오현성 교수, 인사관리학회 ‘우수논문상’

전주대학교 오현성 교수(경영학과)가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사람중심접근법을 적용한 집단문화권 직장인의 조직몰입프로파일 비교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 교수는 인문사회과학연구 및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동도가 높은 사람 중심 접근법 기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해 기존 학술연구와 차별점을 둔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오현성 교수는 전공영역과 더불어 4차산업 시대에 맞게 다양한 학술 분야(교육심리, 창업교육, 관광심리, 농식품마케팅)에도 다수의 프로파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태)은 2021년 스마트 K-도시관 지원 사업에 선정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에 미디어 제작 환경을 구축해 인 콘텐츠 제작·채널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익산교육문화회관 미디어 창작공간은 1인 미디어실, 스튜디오 제작실, 미디어 교육실로 총 3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가 구축돼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영상 촬영·편집하는 등 미디어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익산교육문화회관에 따르면 향후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형태 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지식문화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회관이 다양한 콘텐츠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